

투데이 칼럼

평양 1만세대 착공의 의미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포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이 열렸다. 지난해 인공된 1만 세대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북한은 '건설부 문 일꾼 대 강습회'를 여는 등 건설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에서는 대규모 건설 공사가 이런 식으로 체계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신탄집 건설 착공식에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집결했다. 실제로 떠오른 조영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선글라스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조각도를 바리하고 착공식 현장을 두루 살피더니 연신 흐트란 미소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신탄집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시 5만 세대 신탄집 건설 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인민들과 약속을 지키게 되며, 수도사민들의 신탄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착공된 승진 승화지구의 신탄집 1만 세대 공개도 예고했다. 조선

중앙TV는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은 9년 만에 건설부 문 일꾼 강습회를 열어 건설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일찌감치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건축물 공사와 도시개발을 정치 사회적 이념으로 연결시키고, 지도자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재건에 집중했다. 당시 북한은 주택 대량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다. 그 결과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북한의 대도시에 대거 들어오게 된다.

'건축예술론'이란 책까지 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다른 도시계획을 주도했다.

평양 외곽에 우리의 신도시 개발과 비슷한 대규모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함

께 건설사업도 대거 중단됐고 주택 부족 현상은 심화됐다.

북한의 건축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는다. 평양의 스카이라인까지 바꿔 놓은 화려한 고층 건물이 대거 들어선 것이다.

김 위원장 집권 첫해 대규모 주택단지 '창전거리'가 조성됐다. 53층 주상복합아파트 은하로 대표되는 미래과 학자거리와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아 려명거리까지 조성됐다.

특히 려명거리는 유례없는 속도전식 건설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거 공간과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대규모 복합단지도 눈길을 끌었는데,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북한 건축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 신탄집들을 살펴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

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이나 가족보다 사회적 집단생활에 더 큰 의미를 뒀던 만큼 주택에서 가족 공동공간을 철저히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실이 집안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 식사를 하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졌다.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당국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규모 건설을 통해 결속하고 대외 압박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에 삼지연을 집중 조명할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설 정치라는 평가다.

삼지연은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농촌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차적인 셈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장기화와 국경 봉쇄로 향후 북한의 대규모 공사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력경쟁을 외쳐져 자체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 공사에선 그 한계가 분명하다. 평양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105층 튜링호텔도 30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건설 정치로는 주민들의 질적인 생활환경까지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

기고문

봄철 산불이 파리를 뜨고 있다

은년화로 인해 건조해진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우리 도내에서만 벌써 2월 20일 현재 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아직도 우리 뇌리에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은 아른 상흔처럼 깊이 파리를 뜨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된 겨울 가뭄과 전라북도 전역의 적설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조그마한 불씨에도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환

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등산객 대부분이 산불 예방 홍보내용과 같이 작은 불씨도 조심하지만, 최초 발화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일부 사소한 행동이 후손들에게 불려주어야 하는 자연의 허파와 같은 초목이 산불로 사라진다는 생각을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산불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불 발생원인 중 90%



조계선
정수소방서
지휘조사 2팀장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논·밭두렁 태우기'와 '담뱃불'이 산불의 시발점이 된다.

이처럼 일부 무관심함과 부주의가 반복적인 산불을 발생시키고 있다.

습기 빠진 낙엽이 쌓인 겨울 산에 봄의 건조함과 거친 바람이 더해지면 앞으로 더욱 산불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소방은 강력한 산불대피체제와 전문

적인 진화역량, '산불 전문 진화 차량'과 같은 특화된 장비구축으로 재난 대응에 각별한 주의와 감시 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관내 주요 등산로를 찾아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산림인접지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및 등산객인 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아름다운 푸른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요즘 소중한 산과 들에서 평화롭게 호흡할 수 있는 3월을 기대한다.

사설

정리 컨설턴트 시대

최근 현대인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주변 환경 정리전문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으로 차츰 각광을 받기 때문이다. '정리 컨설턴트'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고객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영어로는 Professional Organizer라고 한다. 이들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간단히 정리 정돈하는 것을 기본이다. 환절기 대청소를 위해서는 청소 노하우가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고 곳곳에 물건과 옷가지 등이 널려 있는 집이 많다. 옷장은 계절 구분 없이 섞여 있다. 액세서리 등은 옷장 여기저기에 널려있다. 모두 정리 컨설턴트가 필요한 곳이다.

정리 정돈 전문가들은 디자인이나 설치, 가구 배치 등을 통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마련한다.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을

선별하도록 조언도 한다. 작업 환경을 인체 공학적으로 배치하고 공간 활용이 원활하도록 주변을 정리한다.

정리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가구 배치, 수납 도구 등에 대해 제안을 한다. 이 직종은 1985년 무렵부터 업무 등으로 바쁜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돕는 일이 탄생하면서 비롯됐다.

해외의 정리 컨설턴트 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변 환경 정리전문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업체에서 그룹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시 학력, 나이 등에 대한 특별한 조건은 없다. 대부분 업체에 취업한 뒤 교육을 받아 활동한다.

국내에서는 수납 컨설턴트와 정리 컨설턴트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 정리 수납 전문 업체가 늘고 있다.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정리 전문가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윤경 황호철의 호랑이 그림

최근 김제 예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윤경 황호철 화백의 호랑이 그림' 전시회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2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열린다.

황호철 화백은 2022년 올해 임인년을 맞아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황 화백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호랑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우리 국토의 형상이 호랑이 모양이고 우리 민족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호랑이를 그린다기보다 우리 민족을 그려 나가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 속담, 민화 등은 매우 많다. 은혜를 갚기 위해 좋은 빛자리를 찾아 준 호랑이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호랑이는 은혜를 갚는 효와 보은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묘사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신봉력을 지닌 동물이다. 기백 있는 영물이고, 해학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친구였다. 한편 윤경 황호철 개인전은 지난해 12월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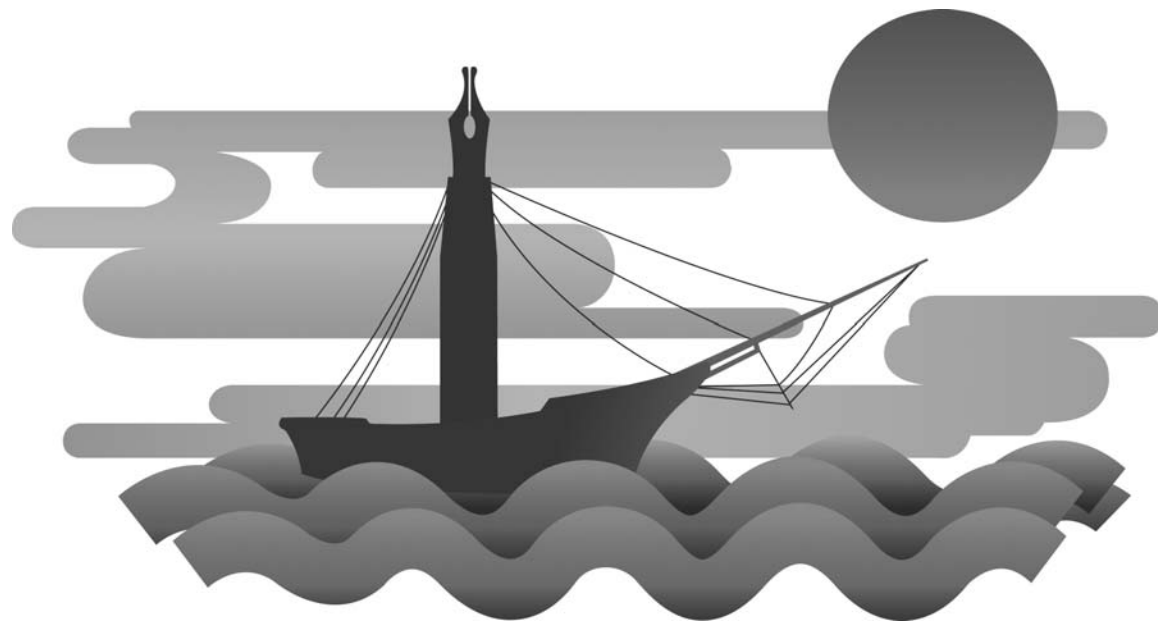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이곳에서도 역시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과 함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임인년을 맞고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 60여 점을 선보였다.

화폭에 가득 채운 '맹호도'에는 호랑이의 위엄이 절로 넘쳐난다. '별의 위엄', '설중산책', '가장맹호', '호위도', '추색맹호도', '설중맹호도' 등 주제도 다양하다.

작품마다 호랑이의 당당하고 의지한 품질이 표현됐다. 터럭 한 올 한 올을 무려 수천 번을 반복해서 세밀하게 그려냈다. 윤경 화백은 전주 출신이다. 전주교육대, 전주대 미술학과,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으며, 전 북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회화대전,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경 황호철 화백의 무궁한 정진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